

## 하이원리조트, 정선 문화 공연 연계 '지역상생'

등록 2026.05.29 10:12:32



하이원리조트 운탄고도 케이블카.(사진=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남한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는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정선아리랑 소리극 '땃꾼' 또는 '아리아라리'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객은 공연 입장권을 인증해야 하며 관람 해당 월에 리조트 내 부대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운탄고도 케이블카'와 물놀이 시설 '하이원 워터월드', 리조트 내 레스토랑 이용 시 할인이다. 또한, 굿즈를 판매하는 '1340스토어&행운상점'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리유저블백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은 하이원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호 강원랜드 관광마케팅본부장 직무대행은 "정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널리 알리고, 하이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역의 멋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